장성군, 스마트 도시 도약 준비 마쳤다

디지털트윈국토 사업 완료
시범사업 최종보고회 열어
행정활용모델 기술 시연
행정서비스 효율성 향상 기대

장성군이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스마트 성장도시로 도약한다.

장성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국토는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컴퓨터 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지형지물을 만들고 다양한 모의실험을 펼치는 기술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포함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장성군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은 행정업무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활용모델 개발'과 '3차원 기반 데이터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행정활용모델 기술 시연에 이어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시연은 사업 시행사인 엘티메트릭(주)이 맡았다.

장성군이 개발한 행정활용모델은 ▲건축물 색채디자인 시스템 ▲정원조성 시뮬레이션 시스템 ▲주차안내 서비스 ▲슬레이트 교체 지원 서비스 ▲현장 조사·관리 시스템 5개 분야다.

건축물 색채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제 장성군과 동일하게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건물에 다양한 색을 입혀 도시경관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정원조성 시뮬레이션 시스템 역시 가상공간에 여러 가지 정원을 조성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적합한 모델을 찾는 데 활용한다.

주차안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티맵(T-Map)과 연계해 장성지역 내 주차 가능한 곳을 알려준다.

슬레이트 교체 지원 서비스는 지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소재 건물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가상공간에 표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조사·관리 시스템은 가상공간에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두었다가 추후 시설물의 보수, 정비 시기와 안전도를 확인할 때 활용한다.

시스템 시연에 참관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호평했다. 장성군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현된 우리군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다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지난달 30일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진군 한우 유전체 검사 '한우개량 원스톱 서비스' 제공

혈통암소 700두 유전체 분석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화 속도

강진군이 한우 유전체 검사를 통한 한우개량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을 위한 '2022년 한우 유전체 분석검사 지원사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진군이 추진한 유전체 검사사업은 한우 염색체상 유전자를 분석해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는 맞춤형 개량사업이다.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선 8기 들어 전남에서 처음으로 군과 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대상 개체별 유전체 분석결과(능력지수) 보고서를 해당 농가에 배부하며 안내·지도하고, 참여농가의 개량방향과 계획교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9월부터 혈통등록 암소 700두를 유전체 검사 대상우로 선정해 10월 모근(꼬리털)을 채취했으며, 11월 중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유전체 분석(도체·체형·번식)을 완료하고, 12월 현재 대상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한우 유전체 분석검사 및 농가컨설팅 지도사업은 향후 혈통정보 및 한우 형질능력 결과를 바탕으로 우량암소를 조기 선발하고, 저능력우는 조기 도태함으로써 개량 세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 경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맞춤형 한우개량을 통해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매년 최우수 암소를 지속적으로 선발·관리하고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해 강진 한우를 전국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한우등록, 정액공급, 선형심사, 친자감별, 등급향상제, 장려금 등 맞춤형 한우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등급 이상 평균 등급률을 77%까지 향상시키고, 매년 유전체 검사를 통해 한우개량을 가속화 하며 신규 명품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유전체 검사결과 현장 농가컨설팅이 진행 중인 강진군의 한 한우농가.

담양군 보행친화도시 구축 박차 가한다

행안부 보행환경 정비 공모 선정
56억원 투입 3개 지역 정비 사업

담양군이 보행친화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시범사역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시설 정비 위주의 개선사업 한계를 보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방재 등 생활권 전반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은 모두 보행안전 및 편의, 주정차 해결, 기반(인프라) 확충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타 정책 연계, 지역 활성화 등 사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민관합동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3개 지역에는 개선사업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56억원(지역별 사업비의 50% 내 최대 30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기존 보행사업의 체계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맞춰 지역특색을 살린 따뜻한 별과 영산강을 느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관광지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이끌어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고,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 16개국 다문화가족 화합을 노래하다

200여명 참여 한마음축제 성료

장성지역 다문화가족 최대 행사인 '2022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가 지난 3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사진〉

행사에는 200여 명의 다문화가족과 김한종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등 다수 관계자가 참석했다. 16개국 결혼이주여성의 국기단 입장으로 시작된 본식은 유공자 표창, 아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어울한마당 시간에는 베트남 전통춤 특별공연과 장기자랑 등이 마련돼 흥을 돋웠다.

현재 장성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및 가족은 458세대 162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 규모다.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 이행을 통해, 올해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사업 대상을 기존 5세대에서 20세대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에는 5세대 더 늘어난 25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축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치매어르신 건강한 겨울나세요

함평군 건강꾸러미 배송 시작
430명 온모자·워크북 등 전달

함평군이 치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건강꾸러미〈사진〉 배송을 시작했다.

함평군은 이달 6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75세 이상 치매어르신 430명을 대상으로 '기억채움 건강드림 꾸러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꾸러미 배송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꾸러미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온모자, 보온양말, 비타민, 파스를 비롯해 인지재활을 위한 워크북 등으로 구성돼있다.

군은 건강꾸러미와 함께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개인위생 ▲코로나 동절기 추가접종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 리플렛을 함께 동봉해 배송할 계획이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건강꾸러미가 치매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천연염색재단 '도자와 섬유 만남' 전시회

10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은 오는 10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도자와 섬유의 만남'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동심'(童心)을 주제로 강서록 작가의 '도자 작품'과 배수진 작가의 '섬유인형' 개인전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강서록 작가는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도자의 매끄럽고 차가운 질감이 아닌 투박하고 때 묻지 않으며 언제나 해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보는 아이들의 동심을 투영한 작품을 선보인다.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 '빨간 머리 앤' 등 동화·문학작품 속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을 되돌아 보게하는 순수한 모습과 따뜻함을 엿볼 수 있다.

배수진 작가의 섬유인형 작품은 작가가 어릴 적 좋아했던 '해와 달님', '숲속 이야기', '앨리스와 모자장수' 등 동화 속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이자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배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연말을 맞아 강서록, 배수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동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추억과 상상, 향수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강서록 작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담양군, 2027년까지 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

종합운동장·궁도장 등 들어서

담양군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담양읍 만성리 460번지 일원에 15만 1386㎡(약 4만 5800평) 규모의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현재 조성된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에서는 담빛수영장과 담빛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체육회관(반다비체육관), 궁도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2023년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신청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군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담양군이 스포츠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 조감도.

인문학 프로그램 '살기 좋은 담양, 생활 인문학' 운영

담양군이 담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인문학 프로그램 '살기 좋은 담양, 생활 인문학'을 운영한다.

'살기 좋은 담양'이란 주제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 교육 특구로 지정된 담양의 주민들에게 우수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 인문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LP음악충전소와 해동문화예술촌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반려, 음악, 문학, 전통주, 생태에 관한 세부 주제로 나눠 총 5회 차에 걸쳐 진행한다.

인문학 강연으로는 12월 ▲13일 임세진(반려인문학 강사) ▲16일 이창수(전)광주MBC 국장 ▲20일 김용택(섬진강 시인) ▲23일 모세환(순천정원아카데미 대표) ▲27일 양대수(추성고을 명인) 열릴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혹은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061-381-3041)에서 가능하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 동면 서성제, 호수 경관 관광지로 개발

2025년까지 50억원 투입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서성제(환산정) 주변이 관광지로 조성된다.

화순군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서성제 주변에 수변 산책로와 전망대, 출렁다리,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관광 자원화 신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중 25억원을 도비에서 지원받는다.

관광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호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산정은 1637년 백천 류함 선생이 창건한 정자로 2007년 1월 5일 화순군의 향토 문화유산 제35호로 지정됐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